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70호 【루계 제26144호】 주체107(2018)년 9월 27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각 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일에 즈음하여 각하께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귀국인민에게 복리와 번영이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타이왕국 국왕
마하 바지라롱콘

2018년 9월 9일 방콕크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 정 은 각 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세이쉘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이날은 귀국의 력사에 아로새겨질 경사스러운 명절로 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이 건강하실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세이쉘공화국 대통령
대니 파우레

2018년 9월 13일 빅토리아

세기적인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 조선

우리 나라 재외대표부들에서 행사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벨라루씨, 프랑스, 도이췰란트, 로므니아, 체스꼬, 벌가리아, 스위스, 스웨리예, 뽈스까, 에스빠냐, 이딸리아, 기네, 나이제리아, 우간다, 적도기네, 남아프리카, 민주콩고, 에찔트, 에리오피아, 세네갈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들에서도 및 사진전시회, 연회가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 정부, 정당, 단체, 기관과 국제기구의 인사들,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였으며 우리 나라 대표부군들이 참가하였다.

벨라루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공화국창건 70돐을 맞는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화국의 장구한 력사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혁명활동력사이다.

이 영광스러운 력사는 선대수령들의 숭고한 풍모를 그대로 체현하신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프랑스혁명적공산당 총비서는 이렇게 언급하였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투쟁은 우리들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앞으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우간다대통령부 상은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고 경사스러운 날에 즈음하여 장구한 기간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달성한 조선인민을 축하한다고 강조하였다.

적도기네 외무 및 협조성 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적도기네인민은 나라의 해방을 실현하시고 자주의 강국을 일떠세우시였으며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김일성주석께 충심으로 되는 경의를 드린다.

오늘 조선은 김정은각하의 령도아래 자주권수호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고있다. 적도기네는 앞으로도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위업을 지지성원할것이다.

한편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기간에 중국에서는 우리 나라 문화전람회들이, 도이췰란트, 세네갈에서는 사진전시회가, 몽골, 타이, 싱가포르, 기네, 나이제리아, 알제리의 여러 단위들에서는 영화감상회들이 있었다.

행사들에서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 강국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선 공화국의 불굴의 기상에 대한 찬양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왔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조선의 최고령도자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고 이역의 애국초소로 떠나는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성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자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 민족과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대경사로 성대히 거행된 공화국창건 70돐 대축전은 대대로 수령복, 태양복의 행운을 지닌 주체조선이 얼마나 강대한 국가이며 그 전도가 얼마나 양양한가를 다시금 세계만방에 과시한 력사적인 계기였습니다.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전체 성원들은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공화국창건 70돐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과시하는 승리와 영광의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지회들은 꿈결에도 뵙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 안겨 반만년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경사의 기쁨을 조국인민들과 함께 나누며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받아안은 9월의 나날을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한 전인민적총진군을 진두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공화국창건 70돐 대축전에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한 총련의 여러 대표단, 방문단들을 선참으로 불러주시고 꿈에도 바랄수 없었던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였습니다.

9월의 경축광장에 남먼저 불러주신것만도 더없는 영광이건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까지 합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사랑의 축하문을 보내주시는 최상최대의 특전과 특혜를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천금에도 비길수 없고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문을 받아안던 그날 지회들은 원수님 제일 가까이에 우리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산다는 무상의 영광과 행복감에 휩싸여 뜨거운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습니다.

지회들은 온 세상이 우러러 칭송하는 희세의 천출위인을 한자리에 모신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장들에서 언제나 초대석의 앞자리에 앉을 때에도, 자애로운 어버이의 다심한 은정이 깃든 성대한 연회상을 마주했을 때에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손길아래 태여나 성장한 총련을 장중보옥처럼 남달리 아끼고 위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사랑의 세계에 숫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회들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언제나 마음속 첫자리에 안으시고 태양의 열원과도 같은 위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만복의 최절정우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운동사와 더불어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갈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사랑과 배려속에서 흘러간 뜻깊은 조국방문의 나날에 지회들은 영원한 추억으로 간직될 참으로 귀중한것을 받아안았습니다.

지회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세차례나 몸가까이 모시였던 승리의 9월경축행사장에서 온 민족과 인류가 불세출의 전설적위인으로, 가장 걸출한 국가령도자로 한결같이 우러러 칭송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기였습니다.

김일성광장과 5월1일경기장에서 성대히 진행된 공화국창건 70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비롯한 대축전장들마다에 펼쳐진 수령결사옹위, 일심단결의 감동깊은 화폭을 보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노도쳐나가는 위대한 강국, 김정은조선을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욱 굳게 간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사스러운 9월의 명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 세계 각국의 당 및 국가지도자들과 저명한 인사들, 진보적인류가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는 감동깊은 사실을 목격하면서 원수님께서 지니신 절대적인 권위와 높으신 국제적명성이야말로 주체조선의 존엄이며 불가항력의 힘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하였습니다.

조국에 체류하는 기간 지회들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구들, 자력갱생과 과학기술로 흥하는 일터들을 참관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이 현실로 펼쳐진 휘황찬란한 앞날을 가슴뜨거웁게 새겨안을수 있었습니다.

특히 력사적인 9월에 평양수뇌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대통로를 활짝 열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출중하신 모습을 크나큰 격정과 눈물속에 우러르며 우리 민족이 일구월심 바라던 통일조국의 장엄한 새돐이를 기쁘게 그려볼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성이 판 불패의 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이고 영광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 잘 받들어 모시는 길에 조국의 통일도 강성번영도 있다는것, 바로 이것이 이번 조국방문을 통하여 지회들이 더욱 역력갈이 간직한 절대불변의 신념입니다.

지회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승리의 9월단상에 높이 모시였던 크나큰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개척자,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무한히 충직한 참다운 애국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지회들은 각급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5대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모든 일군들과 동포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어머니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애국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겠습니다.

지회들은 본부, 지부를 비롯한 각급 조직들과 단체들을 그 어떤 돌풍에도 끄떡없는 애족애국의 믿음직한 성돌로 반석같이 다지며 《동포들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의 구호를 높이 들고 동포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나감으로써 모든 조직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를 뜨겁게 전하는 어머니조국의 품으로, 동포들의 정든 집으로 꾸려나가겠습니다.

지회들은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한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진군에 발걸음을 맞추어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김정은천하 제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보다 특색있게 이바지해나감으로써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지장찬 년대기우에 애국충정의 년륜을 더욱 뚜렷이 새겨나가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하무비의 위대성에서 사회주의강국위업의 최후승리를 확신하며 이역땅으로 떠나는 지회들의 간절한 소원은 오직 하나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권화이시고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성원일동

주체107(2018)년 9월 19일

5 000여m의 기본방조제가 뻗어나간다

룡매도간석지건설장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무른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황해남도간석지건설총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드높이 룡매도간석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간석지건설자들은 파감한 돌격전을 벌려 20여일동안에 방대한 량의 흙을 처리하고 중간방조제공사를 끝낸데 이어 련속공격전으로 4구역 5 000여m의 기본방조제건설에 진입하였다.

간석지개간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을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종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4구역 기본방조제건설에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빠른 기간에 완공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다는것을 심장에 새긴 종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비상한 각오를 안고 분발해나섰다. 특히 밀물과 썰물로부터 기본방조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면서 돌제취를 운반에 확고히 앞세웠다. 또한 채석장에서 자동차들의 머무름시간을 줄여 운반수단의 가동률을 높이게 하였다.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을 안고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드높이 그날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주택건설분사업소, 옹진간석지건설분사업소, 양화간석지건설분사업소, 청단간석지건설분사업소의 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의 기상이 나래쳤다.

도정굴진을 맡은 건설자들은 기본방조제공사장에 더 많은 돌과 흙을 보장하기 위해 앞선 발파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련속천공, 련속발파로 종전보다 굴진속도를 1.5배로 높이였다. 결과 이들은 짧은 기간에 도정굴진을 끝내고 수차에 걸치는 3만산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기본방조제를 하루빨리 완공하는데서 자기들이 맡은 임무를 깊이 자각한 기계화분사업소의 운전사, 운전공들은 밤낮이 따로 없는 힘찬 전투를 벌리였다.

이들은 걸음마다 난관이 앞을 막아나서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굴착기와 불도젤, 자동차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여 뛰였다.

운반실적이자 공사실적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한 자동차운전사들은 쉴새없이 흙과 돌을 운반하여 지난 시기보다 실적을 훨씬 높이였다. 이들은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그날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하여 일손을 놓지 않았다. 굴착기운전공들도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힘을 넣어 운반실적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간석지건설자들은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원칙에서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였다.

장석공사를 맡은 건설자들은 조국의 대지를 넓혀간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하나의 돌도 질적으로 쌓으면서 실적을 올리였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최단기간에 드넓은 간석지를 옥토로 전변시킬 높은 목표밑에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혁명열, 투쟁열에 의해 룡매도간석지건설은 계속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전명일
사진 본사기자 최충성

가을걷이 성과계속확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황해남도에서

황해남도의 협동벌들이 벼가을걷이전투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면한 벼가을걷이전투에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벼가을걷이전투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벼가을걷이를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시, 군들에서 로력과 운반수단들을 총집중하게 하고있다. 특히 올해의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애써 지은 낟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해 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그날계획은 무조건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시, 군의 일군들이 이신작칙의 산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있다. 우리 당을 쌀로써 절사옹위할 드높은 열의밑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벼가을걷이실적은 날마다 뛰여오르고있다.

배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벼가을걷이전투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다.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떨쳐나선

평안북도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안북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할 열의밑에 강냉이가을걷이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안의 농촌들에서는 강냉이가을걷이를 본격적으로 내밀어 9월 25일까지 52%계선을 돌파한 기세드높이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 군당조직들에서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가을걷이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모든 시, 군들에서 강냉이가을걷이일정계획을 실정에 맞게 세우고 강냉이가 익는족족 가을걷이를 진행하도록 기술적지도를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은 가을걷이전투로 들끓는 시, 군들을 맡고 내려가 가을걷이를 적기에 와닥닥 해제끼도록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강냉이가을걷이에서는 대천군과 염주군이 앞서나가고있다.

군안의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섰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농장들에서는 가을걷이일정계획을 자기 지방의 기후조건과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땀흘려 지은 낟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해 전투를 벌리고있다.

룡천군과 신의주시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강냉이가을걷이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이곳 시, 군의 농촌들에서는 가을걷이실적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있다.

정주시, 선천군에서도 강냉이가 익는족족 가을하는 한편 뜨락또르와 탈구지를 비롯한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제때에 실어들이고있다.

박산군과 벽동군을 비롯한 여러 군들에서도 벼가을걷이를 시작하기 전에 강냉이가을걷이를 와닥닥 끝낼 목표를 세우고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고있다.

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협동벌들에서는 강냉이가을실적이 날마다 뛰여오르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특파기자 박철

수령의 부강조국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시는 걸출한 령도자

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우리 조국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로를 따라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금 무진막강한 발전잠재력에 의거하여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강용한 기상을 보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주체의 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대성을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이 위대한 나라를 일떠세운다. 수령이 위대하면 작고 뒤떨어진 나라도 발전된 나라로, 권위있는 강국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제국주의의 발굽에 무참히 짓밟히고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인민의 락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류례없이 거창한 애국위업을 과감히 개척하시고 당대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린 희세의 정치가,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절세위인들의 령도밑에 한세기도 안되는 짧은 력사적기간에 우리 조국의 존엄과 지위, 국력에서는 천지개벽과도 같은 전변이 이룩되고 우리 인민은 수천년민족사를 다하여서도 누릴수 없었던 모든 영광을 맞이하게 되였다.

력사와 전통은 계승되여야 빛난다. 주체의 강국건설위업은 제국주의반동들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며 력사의 생는길을 헤쳐야 하는 류례없이 간고한 투쟁이며 세대를 이어 진행되는 장기적인 위업이다. 민족재생과 번영의 새 기원을 열어놓고 고귀한 애국유산을 마련하여 물려준 수령의 업적이 순결하게 계승되고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여야 강국건설의 력사적대업은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오늘 우리 조국은 탁월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여 수령의 업적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뿌리는 위대한 나라로 존엄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들의 강국건설업적을 빛내이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국가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천명하시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며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수령의 유훈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적극 떠밀어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식, 위대한 장군님식대로 진행하며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전진시켜오신 강대한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신념과 정력적인 령도는 오늘 위대한 승리와 기적들을 안아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국가건설사상과 리론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시켜나가시는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수령의 강국건설위업에 충실한 후계자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수령의 사상리론의 순결성을 변함없이 옹호고수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국가건설사상과 리론의 근본핵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당과 국가가 모든 정책작성과 집행에서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할데 대한 사상, 자강력제일주의를 항구적인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사상리론들은 그 어느것이나 사람중심, 인민대중중심의 원리를 최상의 높이에서 구현하고있다.

수령의 사상과 리론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계승하려면 그것을 변화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구현해나가야 하며 그것은 사상리론의 거장만이 할수 있는 숭고한 위업이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근력에 세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강국이라는 사상,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가 우리 식 사회주의의 3대전략자산이라는 사상,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사회제도와 국력평가의 기준이라는 사상 등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에는 주체의 강국건설리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여 그 진리성과 정당성, 위대한 생활력을 끝없이 빛내이시려는 웅지가 새겨져있다.

크지 않은 우리 나라가 정치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온갖 외세의 간섭과 압력을 단호히 물리치며 그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고 모든 일을 우리가 마음먹은대로, 우리의 때깔대로 내밀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희세의 사상리론가들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천만년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우리 공화국을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그 존엄을 만방에 떨쳐주시는 탁월한 정치가이시다.

자주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이 날로 극대화되는 오늘의 세계에서 강위력한 정치군사력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힘의 상징이며 강국건설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사회주의위업을 이끄는 령도자의 위대성은 정치와 군사를 어떻게 틀어쥐고 정치군사적힘을 어떻게 다져나가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

부강조국건설위업은 단결로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확고히 견지하신 혁명철학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정히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사회주의조선의 불가항력적위력인 일심단결을 천백배로 다져나가시는데서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전당이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며 인민에게 의거하여 투쟁해나가도록 한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 인력정치에 의하여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가 공고화되였다. 특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탁월한 청년중시령도로 청년들을 당의 권위를 앞장에서 옹위하고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믿음직한 전위대, 창조의 거인들로 튼튼히 준비시키신것은 우리 나라가 주체의 정치사상강국으로서 그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게 한 불멸의 업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업적에 토대하여 우리 공화국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신것은 민족사에 특기할 거대한 공적이다. 절세위인의 전략적결단과 강인담대한 배짱, 희생적인 애국헌신이 있어 우리 조국은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핵공갈과 제재봉쇄속에서도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완성하는 력사적대업을 5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할수 있었다. 오늘 희세의 령장의 손길아래 로동당기를 제일군기로 틀어쥐고나가는 혁명적당군, 백전백승의 전략전술과 완벽한 실전능력을 체득한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된 우리 인민군대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믿음직한 수호자, 강국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선봉대, 돌격대로 위용떨치고있다.

세상사람들은 류례없이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최고의 정치적안정을 이루고 자기가 정한 길을 따라 꿋꿋이 나아가며 신화적인 기적들을 련이어 이룩해나가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정치군사적위력을 목격하면서 이 위대한 힘을 마련한 조선로동당에 대한 감탄과 찬사를 금치 못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자립경제의 발전잠재력을 비상히 증대시키고 총폭발시켜 경제강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시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정치적자주성의 실현과 자위적국방력건설의 물질적담보인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어린 인민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제재압박에도,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없는 강력한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드팀없는 신조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이 확고한 신념은 자립경제의 발전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도록 나라의 경제전반을 재정비하고 활성화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데서 가슴깊이 절감할수 있다. 최근년간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생산기지들과 현대화, 정보화의 본보기, 표준공장들이 도처에 일떠섰으며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식과 체계가 더욱 개선되고 견결한 혁명정신과 무비의 창조력을 지닌 과학자, 기술자대렬이 장성강화된것은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거둔 커다란 성과로 된다.

자립경제건설의 근본목적은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자는데 있다. 우리 당이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중시하는것도 구경은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인민생활을 부단히 향상시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높이 울리게 하라!》, 이 구호에는 오직 당만을 믿고 준엄한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온 우리 인민에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이 함축되여있으며 인민의 커가는 기쁨과 행복에서 혁명하는 보람을 찾는 고결한 멸사복무정신이 응축되여있다. 오늘 온 나라 어린이들이 해빛밝은 교실과 훌륭한 소년단야영소, 학생소년궁전들에서 마음껏 배우며 씩씩하게 자라고 평범한 근로자들이 무상으로 받아안은 고급살림집들과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행복에 겨워 웃는 모습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자립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들이 그 혜택을 실지로 누리게 하기 위해 온갖 시련을 맞받아뚫고 련속공격해나가는 위대한 우리 당만이 펼칠수 있는 자랑스러운 화폭이다.

수령의 부강조국건설위업을 가장 철저하게, 가장 완벽하게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특출한 자질과 풍모를 지닌 위대한 후계자를 전두에 모실 때만이 수령의 혁명업적이 조국번영의 고귀한 재보로 빛을 뿌리고 수령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이 찬란한 현실로 꽃펴날수 있다.

수령의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정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품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부강조국건설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는 애민헌신의 성스러운 위업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들고 위해주신 우리 인민의 영원무궁한 행복을 수령님들앞에 자신께서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숭고한 자각과 사명감,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는 장엄한 투쟁에서 한몸이 타오르는 불길이 되여 분투하려는 멸사복무의 희생정신,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국가건설령도사가 불굴의 혁명적원칙성과 인민사랑의 최고정화로 수놓아지게 하는 근본요인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원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인민들이 강대한 조국에서 존엄높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절세위인의 철석의 의지를 원동력으로 하여 주체조선은 력사의 모진 풍풍에도 끄떡없이 오직 주체의 한길로만 돌진하고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는 비약적인 발전속도를 이룩하고있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특출한 정치실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주체의 강국건설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실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다.

령도자의 정치실력이자 국가의 존엄이고 힘이며 위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는 세계가 공인하는 희세의 실력가형의 정치가이시다. 착잡한 국제정치정세흐름의 본질과 시대발전의 먼 앞날, 조국번영의 지름길을 환히 꿰뚫어보며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리론실천적문제들에도 즉시에 명쾌한 해답을 주는 비범한 선견지명과 예지,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준엄한 고비마다 주저없이 용단을 내리고 그 어떤 도전에도 끄떡없이 완강히 밀고나가는 과감한 결단력과 무비의 담력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걸출한 령도풍모이다. 준엄한 시련의 나날을 헤쳐오면서 우리 인민은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총폭발시켜 억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고 세상을 들었다놓는 대사변들을 련이어 이룩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력과 무변광대한 창조세계, 천만사람 모두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 지켜주고 보살펴주시는 대해같은 인덕에 끝없이 매혹되였다.

비범한 자질과 풍모를 지니신 불세출의 위인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투쟁하기에 우리 인민은 세인이 경탄하는 영웅적인민으로 자랑떨치고 우리 혁명은 끝없이 승승장구하는것이다.

태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민족적행운과 영광을 가슴뿌듯이 절감하고있는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국땅우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념원하시던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리상사회를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김 용 일

김 영 남 동 지 가 말디브제도공화국 대통령에게 축 전 을 보 내 였 다

말 례

말디브제도공화국 대통령

이브라힘 모하메드 쏠리흐각하

나는 당신이 말디브제도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에 부합되게 앞으로 좋게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7(2018)년 9월 25일 평 양

중시하신 교육사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며칠 앞둔 어느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한 지식인을 만나시였다. 정중히 인사드리는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리를 잡이하시고 먼저 안부부터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족하신 어조로 우리는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된다고, 새로 구성되는 공화국정부는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교육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교육사업을 떠나서는 사회적진보와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없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학교를 짓고 인민들과 청소년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부터 시작하였으며 해방후에는 어려가지 해결할 문제들이 많았지만 언필문제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첫 의정으로 상정시키고 교육사업에 첫째가는 주의를 돌렸다고, 우리는 앞으로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지식인은 그이의 숭고한 교육중시사상에 깊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나라의 교육사업을 끝없이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며 절세의 위인을 우러르는 그의 가슴은 우리 민족의 미래는 영원히 밝고 창창할것이라는 확신으로 마냥 높뛰였다.

본사기자 한 영 민

왕재산혁명사적지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꾸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본사기자 김 진 명 촬영

김책공업종합대학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평양 9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김책공업종합대학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성동지,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로두철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능오동지와 교육, 과학, 관계부문 일군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박태성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만천하에 과시한 크나큰 긍지를 안고 경제건설대진군에 총매진하고있는 시기에 창립 일흔돐을 맞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축하문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따사로운 손길아래 태여나고 강화발전된 우리 나라 과학기술교육의 최고전당이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실현에 크게 이바지하여온 공로있는 대학이라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7(1948)년 9월 27일 건국위업을 령도하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나라의 종합적인 첫 공업기술대학을 창립하여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대학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서 핵심적역할을 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여러차례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며 과학기술인재육성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도록 고무해주시였으며 대학을 정보산업혁명의 개척자로 내세워주시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였다.

우리 당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시대에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임무를 중시하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건설을 힘있게 견인하는 선두마차, 기관차가 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였다.

축하문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70년 연혁에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충직하게 받들고 유능한 과학기술핵심골간들을 수많이 키워내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여온 빛나는 공적이 새겨져있다고 지적하였다.

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온갖 지성을 바치였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과 혁명사적관, 연혁소개실을 훌륭히 꾸려 대학을 위력한 교양거점으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종합대학의 교원들과 일군들이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현대과학기술성과에 기초하여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추진하고 채우쳐주는 교수방법을 더욱 개선하여 학생들을 혁명성이 강하고 높은 탐구능력과 응용능력을 지닌 창조형의 인재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종합대학에서 세계적인 과학교육발전추세와 공과대학의 특성에 맞게 학과목들을 새로 내오고 공학수재교육과 련속교육체계를 적극 받아들여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서 전진을 가져온데 대하여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또한 원격교육체계를 우리 식으로 대담하게 개발하였으며 선진적인 교수관리제와 콤퓨터에 의한 새로운 시험방법을 도입하여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추동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종합대학의 과학연구집단이 경제강국건설의 주요전구들을 종횡무진하면서 고온공기연소기술과 아크릴산합성공정의 통합생산체계와 같은 절박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으며 현대적인 본보기공장, 표준공장들을 일떠세우고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대학생들이 학습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학부별, 학급별학습경쟁을 맹렬히 벌려 최우등생학급, 대학생과학탐구상수상자학급대렬을 늘이였으며 국제적인 인터네트프로그람작성경연들과 전국적인 대학생경연, 전시회들에서 종합대학의 실력과 영예를 남김없이 떨친데 대하여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미래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온갖 애로와 곤난을 극복하여 교수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헌신분투하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전체 교직원들과 경제강국의 휘황한 앞날을 떠메고 나갈 혁명적인 기술인재로 튼튼히 준비하고있는 대학생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홍서헌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창립 70돐을 맞으며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은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고 대학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빛내여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대학의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절세위인들의 하늘같은 은덕을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세세기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대학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가 제시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전변시키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는것은 오늘 김책공업종합대학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대학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다그치고 창조형인재양성의 조건을 충분히 마련하며 공학부문의 학술중심, 정보중심, 자료봉사중심, 원격교육중심답게 새로운 성과와 본보기를 부단히 창조하고 일반화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교원, 연구사들이 교수교양사업과 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하여 혁명의 핵심골간, 세계적인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고 당에서 중시하는 경제건설전역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제기되는 연구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지식경제강국건설의 과학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청년대학생들이 원대한 포부와 리상, 불타는 열정을 지니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20대, 30대의 박사,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여야 하며 높은 충실성과 실력으로 당을 받드는 김책형의 일군으로 준비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대학의 전체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사회주의강국의 휘황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과학기술인재의 대부대를 키워내며 과학의 첨단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위대성교양

신천군 호암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위대성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학습계획을 주별, 월별,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독보와 해설모임, 연구발표모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위대성교양사업을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특히 일군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인상을 보여주는 당보의 기사들을 해설해주면서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도록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현장으로 나간 리당의 일군은 협찬을 리용하여 당보에 실린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에 대하여 감명깊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일군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강행군에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그이의 령도를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받들어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일념을 안고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정 순 화

불멸의 그 업적 길이 전해가라,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최고전당이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진 김책공업종합대학의 70년력사를 더듬어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성대히 경축한 기세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가고있는 때에 우리는 김책공업종합대학창립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백두산3대장군의 손길아래 태여난 그날로부터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힘있게 이끌고나가는 선두마차, 기관차로 비상히 강화발전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조국과 인민앞에 커다란 공적을 쌓아올리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70년력사는 그대로 절세위인들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탁월한 령도밑에 해방후 10여명의 기술인재가 전부였던 이 땅에 어떻게 강력한 인재대군이 자라났는가를 감동깊이 보여주는 하나의 서사시와도 같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당의 전략적구호가 제시되고 온 나라 인민이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는 뜻깊은 시기에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력사를 돌이켜보는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세기와 년대를 이어가며 대학을 나라의 위력한 과학기술인재양성기지, 과학기술력심골간들을 키워내는 원종장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여 조국의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주신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주체적과학기술인재육성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절세의 위인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어느날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의 강화발전에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면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수령님께서 창립하시고 이끌어주신 수령님의 대학이라는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창립하시고 이끌어주신 수령님의 대학!

바로 여기에 우리 수령님을 떠나 그 창립도 강화발전도 생각할수 없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뜻깊은 력사가 비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이 나라의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최고전당으로 자라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새 조선건설의 첫 시기부터 민족기술인재육성사업을 나라의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넣어오시였다.

일제의 악착한 민족우매화정책과 식민지노예교육의 후과로 해방직후 우리 나라의 북반부지역에는 단 한개의 대학도 없었다.

우리 나라에는 민족기술인재도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앞길에 가로놓인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애로는 기술과 인재의 부족이였다.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민족인재를 자체의 힘으로 키워낼 웅지를 굳히시고 인민의 첫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을 세워주신데 이어 강력한 민족기술인재양성기지를 창설하실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이를 위하여 공업대학의 모체로 될 공학부와 농수공학부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산업국을 비롯하여 국가의 중요한 기관들에서 일하고있는 기술자, 전문가들을 교원으로 보내주시였다.

그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업대학을 창설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이어 주체37(1948)년 9월 27일에는 평양공업대학(당시) 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해주시였다.

력사의 그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와 자제분께서 드리시는 축하의 꽃다발을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모두가 이렇게 기뻐하니 자신의 마음도 즐겁다고, 오늘은 우리 인민모두에게 기쁜 날이라고, 평양공업대학의 창립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로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더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것으로 된다고 격정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대대로 물려받은 막후한 농업이 나라의 경제에서 기본으로 되고있던 그때 공업대학을 창설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마음속에는 벌써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 부강한 인민의 국가로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이 펼쳐지고있었다.

그후 수령님께서는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대학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해주시기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어려운 형편에서 창립된 평양공업대학은 교사들이 분산되여있는데다가 교실도 많이 모자라고 실험실습조건도 불비하였으며 학생들의 생활조건도 불편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중구역에 새 교사를 일떠세우도록 해주시고 주체38(1949)년 4월 20일 건설현장을 찾으시였다.

그날 교사건설전망과 공사순서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대학을 웅장하고 쓸모있게 건설하여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기숙사터전도 몸소 잡아주시고 학생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앞으로 대학이 부업농장을 따로 하나 가지고있도록 할데 대한 문제, 교원들이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살림집을 빨리 해결해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온정어린 조치들을 거듭 취해주시였다.

대학교원들과 학생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열화같은 사랑은 정녕 끝이 없었다.

하기에 조국의 운명이 판가리되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사랑의 품, 참된 삶의 보금자리, 정든 교정을 수호하기 위해 대학의 수천명의 학생들과 교원들은 서슴없이 전선으로 탄원하여 영웅하게 싸웠다.

오늘도 우리 인민은 평양공업대학이 김책공업대학(당시)으로 불리우게 된 사연을 가슴뜨겁게 간직하고있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김책동지의 희생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40(1951)년 1월 31일 내각결정 제201호를 채택하도록 하시여 대학을 김책공업대학으로 명명할데 대한 온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취해주신 이 조치에는 산업건설의 초행길도 남먼저 걸었고 조국이 불바다에 잠긴 준엄한 나날에는 조국수호의 제일선을 믿음직하게 지켜섰던 사랑하는 혁명전사처럼 김책공업대학이 당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초행길을 걷는 개척자, 돌격로를 열어나가는 전초병이 되기를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이 깃들어있었다.

주체41(1952)년 6월 어느날이였다.

적들의 폭격이 심하여 일군들이 앞을 막아나섰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끝끝내 포화속을 헤치시며 평안북도 운전군 월현리에 자리잡고있던 김책공업대학을 찾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쟁이 끝난 다음 복구건설을 할 생각을 하니 기술간부양성사업을 담당수행하고있는 김책공업대학에 나와보는것을 잠시도 미룰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동무들을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복구건설을 위하여 대학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승리할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그 길에 대학을 내세워주시는 절세위인의 하늘같은 믿음이 있어 교원학자들은 불비쏟아지던 그 나날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축성하고 사회주의공업화사상과 믿음을 담아 《김책공업종합대학》이라고 친히 한자한자 대학현판글도 써보내주시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보다 현대적인 교육조건을 마련해주시느라 그토록 마음쓰신 우리 수령님!

참으로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자면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자면 과학기술인재육성을 앞세워야 한다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지론, 독창적인 인재중시사상의 빛나는 결정체였다.

정보산업혁명의 개척자로 키워주신 위대한 스승

주체90(2001)년 9월 1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신 력사의 그날을 우리 인민은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평범한 날의 보통길이 아니였다.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면서도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두고 생각깊으신 그이이시였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른 그 어느 대학도 아닌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으신데는 참으로 깊은 의도가 있었다.

새 세기에 들어와 우리 당과 조국앞에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안받침할수 있는 과학기술인재를 많이 키워내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있었다.

과학기술은 부강조국건설의 추동력이였으며 사회주의강국은 과학기술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었다. 바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경제를 현대화하여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사명과 임무를 지니고있었던것이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대학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떠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내는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더 잘 키워낼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대학이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일을 잘해나가도록 새 세기,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강령을 편성하는 문제로부터 교수안작성과 과학기술교육내용의 현대화실현, 기술과목교수에서 정보기술, 콤퓨터의 응용비중을 높이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대학교육을 혁신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계속하여 대학의 교수교양사업과 관리운영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려고 한다고 하시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자도서관과 다기능체육관을 일떠세우고 현대적인 콤퓨터들을 비롯한 과학교육실험설비들과 도서들, 운수기재들도 다 해결해주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절세위인의 세심한 지도와 관심속에 전자도서관건설을 다그쳐나가면 어느날 대학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적인 교시를 전달받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건설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다른 나라에서 몇십년동안 하는 콤퓨터화를 빠른 기간에 하려는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는것이였다.

나라의 콤퓨터화를 빠른 기간에 실현하시려는 원대한 구상을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부터!

한가슴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크나큰 믿음이 담긴 그이의 가르치심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사업을 혁신하는것으로부터 정보산업혁명을 개척해나가시려는 확고한 의지가 비껴있었다.

21세기에 들어와 세계는 지난 세기의 관점에서 벗어나 매개 나라의 국력을 그 나라 인재들의 능력으로 보고있었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도 대학을 새 세기의 산업혁명을 주도해나가는 핵심력량으로 보지 못하였다.

나라의 가장 고급한 과학연구력량이 집중되여있는 곳도 대학이며 그 력량을 과학기술발전추세에 맞추어 끊임없이 갱신할수 있는 곳도 대학인것만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자면 대학들에서부터 정보산업혁명의 봉화를 들어야 한다는것이 우리 장군님께서 천리혜안의 예지로 내다보신 미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정보산업혁명의 개척자로 내세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세계적발전추세를 정확히 타산한 가장 옳바른 선택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형편이 어려웠지만 정보산업혁명에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우시기 위해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많은 돈을 들여 세계일류급의 전자도서관을 훌륭히 일떠세워주신것이였다.

몇해후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강국건설에 큰 공헌을 하고있는 대학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나라의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원종장이며 우리 나라 정보산업혁명의 개척자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에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차지하고있는 특출한 지위와 역할이 뚜렷이 명시되여있었다.

절세위인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대학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 졸업생들은 정보산업혁명의 초행길을 용감히 헤치며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갔다.

그들이 대전하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에서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일군들을 만나시면 이런것은 김책공업종합대학에 과업을 주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김책공업종합대학만이 이런 큰일을 할수 있다고 믿음을 주시고 현지지도의 길에서 훌륭히 기술개건된 공장, 기업소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와서 한줄 알았다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역시 김책공업종합대학이라는 최상의 평가도 아끼지 않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기업소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대학에서 거둔 과학연구성과를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자신께서 늘 말하지만 실력있고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은 거의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있다고, 지금 우리 나라의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선구자적역할을 하고있다고, 새 세기 정보산업시대에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은을 내고있다고 또다시 높은 평가를 안겨주시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단천광산기계공장, 평양방직기계공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신의주닭공장, 강계고려약공장, 두단오리공장, 개선청년공원유희장…

우리 장군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수많은 단위들을 찾으시면서 대학이 거둔 연구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신 교시는 헤아릴수 없이 많다.

주체38(1949)년 5월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첫 자욱을 새기신데 이어 1800여차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대학을 집요집요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이렇듯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이 있었기에 대학은 강력한 교육력량과 관록있는 연구집단,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낼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춘 과학기술교육의 최고전당으로 비상히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나라의 정보산업혁명을 앞장에서 주도하고 개척해나갈수 있는 부강조국건설의 강력한 보루로 다지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빛나고있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선두마차, 기관차

또 한분의 희세의 위인, 위대한 스승을 높이 모시어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미래는 더없이 밝고 창창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들여 키워주신 김책공업종합대학,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다.

주체102(2013)년 8월 어느 한 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시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나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중시합니다.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과학기술을 끌고나가는데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선두마차입니다.》

선두마차!

이 고귀한 칭호에는 혁명과 건설의 년대들마다 언제나 그러했던것처럼 김책공업종합대학이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을 앞장에서 이끌고나가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날 다음해에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지어주도록 웅심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온 대학이 커다란 격정으로 불도 가니마냥 부글부글 끓어번지였다.

보답의 맹세를 안고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과학기술을 끌고나가는 선두마차가 용을 쓰며 세계를 향하여 더 힘차게 질주하기 시작하였다. 교육과 과학, 생산이 하나로 밀착된 지식경제시대의 일류급대학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 높은 목표를 안고 시대의 앞장에서 소리치며 질풍쳐 내달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들을 하루빨리 금방석에 앉혀주시려고 어려차례나 살림집건설장을 찾으시여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한생을 바쳐가는 교육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지금 건설하고있는 살림집을 축으로 대동강반에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500세대 더 짓고 봉사시설들도 꾸려주게 되면 웅근 하나의 거리가 형성될것이라고, 새로 일떠서게 될 거리의 이름을 《미래과학자거리》라고 명명하는것이 좋겠다고 또다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후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들의 새집들이경사로 온 나라가 세차게 설레이였다.

그 사랑, 그 믿음이 너무도 고마와 눈굽을 적시며 충정의 맹세를 더 굳게 다진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현실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해 나라의 곳곳으로 달려나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끊직끊직한 연구성과들을 련속적으로 이룩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

주체103(2014)년 11월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공장에 도입된 통합생산관리체계는 규모에 있어서나 지능화, 정보화수준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 최고수준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국가적인 범위에서 생산공정의 자동화,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큰 몫을 맡아 해제끼고있다고, 생산공정의 자동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단위들에 가서 물어보면 모두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도와주었다고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그런 보고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명실공히 실질적인 과학기술연구성과로 당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과학기술력심력량, 나라의 경제발전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기관차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크게 믿고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기관차!

또다시 대학에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고 영광의 길정에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김책공업종합대학 일군들과 교육자들은 심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을 안고 이들은 나라의 곳곳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올리였다.

오늘도 첨단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한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졸업생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파구를 과학기술로 열어제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기운차게 내달리고있다.

그 목과 깊이에 있어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잠재력과 위력은 날이 감에 따라 더욱 커지고있다.

70년전 창립당시 9개 학부에 70여명의 교원들과 1 500여명의 학생들로 첫걸음을 떼였던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오늘 수십개의 단과대학, 학부, 연구소에 300여명의 원사, 교수, 박사를 포함한 수천명의 교원, 연구사들과 1만 수천명의 학생들과 박사원생들을 가진 굴지의 기술종합대학으로, 나라의 위력한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최고전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공업종합대학의 특성에 맞는 첨단교육실현을 위해 교육내용과 방법이 급속히 혁신되고있으며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과학연구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안아올수 있는 현대적인 첨단기술제품개발기지건설이 완공단계에 이르렀다.

세계에는 오랜 력사와 전통, 규모를 자랑하는 수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김책공업종합대학처럼 세기를 이어가며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발전과 번영의 한길을 걸어온 긍지높은 과학기술교육의 최고전당은 그 어디에도 없다.

긍지높은 70년력사를 뒤돌아보고 또다시 걸어갈 승리의 전군길을 벅차게 그려보며 대학일군들과 교육자들이 심장속에 더욱 굳게 새겨안는 불변의 진리가 있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과학으로 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실 원대한 뜻과 확고한 의지를 안으시고 오직 승리의 한길로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 높은 과학교육성과로 받들어나갈 때 주체의 내 조국은 가까운 앞날에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꽃피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나게 되리라는 바로 그것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성스러운 70년행로우에 언제나 당과 수령의 믿음에 결사관철로 화답해온것처럼 앞으로도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두마차, 기관차의 영예를 빛내여나갈것이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그 업적 길이 전해가라,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최고전당이여!

온 나라 인민의 축하의 인사를 받으시라, 나라의 자랑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이여!

글 본사기자 김명훈
사진 본사기자 김충성
김광림

백두산아래 첫 동네를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리상향으로 훌륭히 전변시키자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에서

백두전역에 타번지는 새로운 시대정신창조의 불길

216사단 지휘성원들과 군인건설자들, 돌격대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일단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단숨에 끝장을 보고야마는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창조본때를 본받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는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하겠습니다.》

216사단 지휘성원들과 군인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이 40일만에 또다시 삼지연읍지구 건설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에 무한히 고무되여 새로운 시대정신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전반적인 대상들에 대한 골조공사가 결속되고 지붕공사와 내외부미장, 창문틀드리기 등 마감단계의 건축공사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완강한 돌격전으로 단숨에!

성, 중앙기관려단에서 근 70개의 대상에 대한 살림집, 공공건물건설 및 개건보수와 도로건설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김용민려단장을 비롯한 려단지휘성원들은 건축마감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전투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면서 련대, 대대들에 건설자재들과 35종에 1 200여점의 기공구들을 앞질러 보장해주었다.

3, 4, 5련대 군인건설자들이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을 90%계선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직속 1대대에서는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3동의 3, 4, 5층살림집과 3개의 봉사망건설을 동시에 내밀어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적극적인 후원속에 1련대의 농업성, 재정성, 은하지도국,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중대와 직속 2대대, 직속 3대대의 대성지도국중대를 비롯한 여러 중대들에서 살림집과 군산림경영소, 군버섯공장을 비롯한 많은 대상건설에서 높은 공사속도를 기록하고있다.

922건설려단 평양시련대 공장대대에서 제일먼저 백두산혁명전적지관리소를 완공할수 있게 한것을 비롯하여 모든 단위들에서 근 30동의 살림집과 공공건물, 도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완공의 날을 앞당기고있다.

라선시련대에서는 삼지연음려관외부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으며 평안북도련대 정주시대대는 살림집건설에서 사단적인 우승의 영예를 떨치였다. 백두산영웅청년려단 평안남도련대, 라선시대대에서 밀림원과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618건설려단 황해북도련대에서는 대대마다 기술중대를 조직하고 로력조직을 짜고들면서 자재보장사업을 앞세워 공사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산간도시건설의 본보기, 시범을 창조하며

지방자재를 적극 리용할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모든 단위의 지휘성원들과 군인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이 외장재가 아니라 삼지연지구에 흔한 부사로 외벽마감미장과 장식미장을 손색없이 진행하고있다.

조선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 성, 중앙기관려단의 살림집건설을 맡은 단위들에서는 종전에 쓰던 자재들을 쓰지 않고 누른색부사, 흰색부사를 미분하여 미장하고 씻어내는 방법으로 외벽마감미장을 완성하고있다.

922건설려단 평양시련대 시급대대, 618건설려단 황해북도련대 황주군대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는 부사를 가공하여 만든 새물탈로 외벽마감미장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사단안의 모든 련대, 대대들에서는 부사로 천연돌문양장식타일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살림집들과 공공건물의 외벽마감장식을 하고있다.

어찌 그뿐이랴.

삼지연군 읍지구에 13동의 7층, 9층, 12층살림집들이 새로 일떠선다.

922건설려단에서는 평안북도련대 피현군대대가 맡고있는 12층살림집건설에 수송수단들을 총집중하고있으며 철산군, 온천군대대들에 로력을 집중하고 건설에 필요한 블로크들을 생산하여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7층, 9층살림집건설을 전투적으로 내밀고있다.

평양시련대에서는 9층, 7층살림집건설에 기계화수단들을 집중시키고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게 들이대여 대성구역, 강남군대대 지휘성원들과 돌격대원들이 높은 공사속도를 기록하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황해남도안의 일군들은 연안군, 배천군, 신천군대대들이 맡은 3동의 9층살림집건설장에 나가 돌격대원들을 혁신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618건설려단 함경남도련대에서는 9층살림집건설을 맡고있는 사로구역대대에 로력과 자재를 앞질러 보장해주면서 건설속도를 높이고있다. 또한 련대지휘성원들이 장진군, 성천강구역대대들에 나가 현장지휘를 짜고들어 2동의 7층살림집건설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자강도련대에서는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초산군대대가 맡고있는 7층살림집건설에서, 백두산영웅청년려단 함경남도련대에서는 9층살림집건설에서 영웅청년의 기개와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리게 할 드높은 열의안고 떨쳐나선 216사단 지휘성원들과 군인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삼지연읍지구건설에서는 새로운 시대정신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립체전, 전격전으로

백두산영웅청년려단 평안남도련대에서

백두산영웅청년려단 평안남도련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립체전, 전격전을 벌려 공사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지금 련대의 전투장들에서는 밀림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과 다층살림집건설이 마감단계에 들어서 완공의 날을 가까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설계와 시공, 건재부문을 발전시키는데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정책적요구는 건설에서 선편리성, 선미학성과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원칙을 엄격히 지키고 전문화와 공업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섬멸전, 립체전을 벌려 대상건설을 단숨에 해제끼는것입니다.》

공공건물들과 다층살림집건설이 마감단계에 들어설수록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더욱 분발하였다.

삼지연지방의 기온이 더 낮아지기 전에 건축물의 내외부작업을 빨리 결속해야 하는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련대장 전학철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다시금 깊이 새겨보았다.

지난 7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설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삼지연군 읍지구건설은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속에서 진행되는 사업인것만큼 지도사업과 보장사업을 짜고들고 립체전, 전격전을 벌려 최단기간내에 다그쳐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가르치심대로 련대에서는 구체적인 작전을 펼쳤다.

련대에서는 공사기일이 긴장할수록 당면한 대상건설과업수행에만 급급하는것이 아니라 기능공력량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었다.

대대들에 고착된 목공, 용접공, 도장공, 전공을 비롯한 기능공들의 역할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면서 보여주기사업과 사회주의경쟁을 통하여 그들의 실력을 부단히 높이도록 하였다.

기능공들을 타일붙이기와 수도관접합 등 세밀하고 기술적요구가 높은 작업에 집중시켰으며 도와 밀접한 련계밑에 수백명의 기능공력량을 증강하였다.

련대지휘부에서는 지휘관들이 전투장을 구획별로 맡아 지휘하도록 하였다.

지휘관들은 삼지연군 읍지구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건설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자기 단위에 맡겨진 건설과제를 대상별로, 단계별로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도록 하였다.

지휘관들은 건설에서 요구성의 기준은 당의 요구, 인민의 요구라는것을 명심하고 시공지도 및 감독통제를 강화하여 건설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요구성을 높이였다.

삼지연군 읍지구건설을 위해 현지에 파견된 평안남도당위원회와 시, 군당위원회일군들은 전투현장에 몸을 푹 잠그고 돌격대원들과 한데 어울려 일하면서 시공으로부터 마감자재에 이르기까지 제기되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여 대책을 세워나갔다.

삼지연읍지구에 공공건물과 다층살림집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로 청년돌격대원들을 불러일으키는 당일군들의 현장정치사업은 건설장마다에 청춘의 용맹과 기상이 나래치고 전투적기백과 혁명적랑만이 차넘치게 하고있다.

립체전, 전격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평안남도련대의 전투장들마다에서는 밀림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과 다층살림집건설을 완공할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우승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 922건설려단 평양시련대에서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와 현실적조건에 맞게 건설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자기 단위에 맡겨진 건설과제를 대상별로, 단계별로 불이 번쩍 나게 해제껴야 합니다.》

대상건설에서 앞서나가는 단위, 립체전의 본보기련대.

이것은 단 몇달동안에 근 30동에 300여세대에 달하는 살림집과 공공건물골조공사를 끝내고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내외부미장을 비롯한 마감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922건설려단 평양시련대 지휘성원들과 돌격대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상건설이 마지막단계에 들어서면서 련대지휘성원들이 중시한것은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공사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이는 것이였다.

골조공사가 끝나가던 어느날이였다.

대대별 건축마감공사준비정형을 따져보던 지광현정치부장은 한가지 문제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미장, 칠판지붕씌우기, 시설공사 등 모든 작업이 기술작업이라는것을 놓고볼 때 공장대대나 시급대대를 비롯한 몇개 단위를 제외한 다른 대대들에는 기능공력량이 매우 부족하였던것이다.

기능공문제를 단순히 일정별 공사계획수행을 위한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삼지연군을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긴 지휘관들은 작업조직을 보다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지휘성원들이 높은 혁명적전개력을 지니고 전투과정에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나갈 때 성과가 나기마련이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대일군들은 모든 대대들에 기능공력량을 충분히 보충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고 실속있게 내밀었다. 엄마후 대대마다 미장공, 전공, 목공 등 수십명의 기능공들이 현지에 도착하였으며 기술중대들이 조직되였다.

결과 모든 대대들의 경쟁심을 적극 불러일으켜 건축마감공사의 속도와 질을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자재보장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든것도 긍정할만 한것이다.

련대에서는 모든 단위들에서 외부마감미장공사에 쓸 건설자재를 공사에 앞세워 준비하도록 조직사업을 강하게 내밀었다. 련대참모장 박철준동무는 먼저 대대참모장들에게 화보할 부사의 색갈과 알갱이크기, 색감의 종류와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그리고 확보정형을 보고나 받고 수자나 종합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수시로 현지에 나가 료해하였다. 일부 단위들에서 승벽심을 앞세우면서 질을 홀시하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었기때문이다.

필요한 건설자재를 확보한 다음에는 그것을 건설현장에 쌓아놓고 외부마감공사를 시작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련대적으로 공사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외벽마감미장을 와닥닥 끝낼수 있게 한 담보로 되였다.

어려운 전투과제가 수시로 제기될수록 최고의 실적을 내자면 자기 단위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전격전을 벌리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학철련대장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방대한 도로공사과제를 단숨에 해제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그는 건축마감공사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선 조건에서 자재수송에는 조금 물이 들지 않아도 된다는것을 타산하고 로력과 설비, 수송수단을 도로공사에 집중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도를 내놓았다.

그에 따라 각 대대들에서는 기능공들과 일부 보장로력을 제외한 모든 돌격대원들이 도로공사에 떨쳐나섰다. 그리고 련대안의 모든 자동차들은 토량운반을 위한 집중수송에, 불도젤, 삽차들은 토량처리에 동원시켰다.

지휘성원들은 조직사업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전투과제를 정하고 수시로 제기되는 정황을 제때에 포착하며 즉시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자동차들이 막돌과 흙을 제때에 부리지 못하고 갓 성토한 도로에 빠져 수송에 지장을 받게 되였을 때 련대장은 즉시 불도젤을 들이밀어 부리는족족 다지면서 여러대의 자동차가 동시에 흙을 부릴수 있게 작업구간을 넓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건축마감공사를 중단없이 내밀면서도 5천여㎥의 토량을 처리하여 방대한 도로공사과제를 단 며칠동안에 해제꼈다.

립림목화사업을 조직할 때에도 지휘성원들은 련대적으로 나무심기, 잔디입히기준비사업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시당위원회와의 련계밑에 시적으로 200그루의 가로수를 마련하여 심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그리고 대대마다 잔디밭을 조성하고 책임성높은 돌격대원들을 관리공으로 배치한 다음 련대적으로 비배관리를 틀어쥐고 진행함으로써 2천여㎡의 면적에 잔디를 입힐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었다.

이뿐이 아니다. 대성구역, 강남군대대에 9층, 7층살림집건설과제가 제기되였을 때에는 련대의 로력과 기계화수단을 총집중하고 자재보장을 앞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 또한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하부망공사를 단 며칠동안에 끝내고 지대정리에서도 혁신을 일으킬수 있게 하였다.

당의 원대한 구상을 앞당겨 실현할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온갖 지혜와 정력을 깡그리 바치며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 때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단숨에 해제낄수 있다. 바로 이것이 련대가 립체전의 본보기단위로 된 비결이다.

현지보도

시간을 주름잡아 질풍같이!

조선인민군 진광철소속부대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조선인민군 진광철소속부대가 맡은 공사장에서는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며 도로포장공사가 한창이다. 랠럿 휘날리는 붉은기들, 가슴벅차게 안겨오는 《단숨에》, 《일당백공격속도》 등의 힘있는 글발들과 방송선전차에서 울려나오는 힘찬 노래소리가 전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현장의 복판에서는 부대지휘관인 박명철동무가 공사를 박력있게 지휘한다. 도로포장설비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군인건설자들이 일자리를 꽉꽉 낸다.

넓고 시원하게 뻗어간 현장으로 피치혼합물을 가득 싣고 연방 들이닥치는 화물자동차들, 웅—웅— 용을 쓰며 규모있게 피치포장을 해나가는 여러대의 도로포장설비들, 측량기재들과 다짐대를 들고 작업을 절싹게 해제끼는 군인건설자들…

그야말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는 현장이다.

군인건설자의 기발신호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이 버쩍 들리우더니 피치혼합물이 포설기조구통에 쏟아져내린다. 이어 포설기운전공 김정식동무가 정탄도를 잘 보장하며 피치혼합물을 골고루 펴나간다.

뒤이어 쇠로라다짐기와 고무로라다짐기운전공들인 송정민, 백명근동무들이 피치혼합물이 식기 전에 번뜻하게 새 도로를 다져나간다. 한번씩 앞으로 전진할 때마다 10여m의 새 도로가 죽죽 형성된다.

《빨리, 이러다간 우리가 전교대에 뒤지겠소.》

서로 경쟁적으로 일손을 다그치는 그들의 얼굴마다에 립체전, 전격전으로 당이 준 전투명령을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최단기간에 결사관철할 불같은 열의가 어려있다.

기계다짐이 완성되는족족 군인건설자들이 수동로라와 다짐대를 가지고 이음짬과 흠하기들을 메꾸며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꼼꼼히 도로바닥을 다져나간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일념안고 도로포장을 깐깐히 해나가는 군인건설자들의 모습이 불수록 돋보인다.

한쪽에서는 리철용, 김남일동무를 비롯한 측량공들이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원칙에서 질을 높여나가도록 포장검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한다.

전투장의 여기저기를 오가며 진행중에 있는 도로포장작업의 질적상태를 살펴보는 시공참모 박종권동무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어린다.

《합격이요. 이 기세로 계속 냅다 내밀라구.》

만족한 웃음을 짓는 그를 바라보는 군인건설자들의 얼굴마다에 기쁨이 가득 실리고 전투장은 분과 초를 다투며 더욱 끓어번진다. 그 벅찬 승전을 느끼며 흥분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에게 지휘관은 이렇게 말한다.

《삼지연군을 현대문명이 응축된 산간도시로 훌륭히 꾸릴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우리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열이 대단합니다. 단숨에의 기상을 떨치며 공격속도를 더욱 높이고있습니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혁신의 소식을 담은 전투속보들이 연방 나붙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사장은 더욱 끓어번지고 어느덧 도로포장공사를 끝낸 군인건설자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기쁨을 터친다.

수천㎡의 방대한 공사과제를 단 하루동안에 수행한 자랑과 긍지가 모두의 얼굴에 비껴흐른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마자르로동당 위원장일행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류르대르 쥴라 마자르로동당 위원장과 일행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유서깊은 대양의 성지를 찾은 그들은 력사의 집에 깃들어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돌아보았다.

위원장은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김일성주석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손님들은 또한 주체사상탑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옥류아동병원 등을 참관하였다.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들에서

웰남대사관에 화환을 보내였다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들에서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 쩐다이 꽝동지를 추도하여 26일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에 화환들을 보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외무성, 대외경제성,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외교단사업총국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고인의 사진앞에 진정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대동지, 외무성 부상 최희철동지, 대외경제성 부상 리명산동지, 조선웰남친선협회 위원장인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일동지, 외교단사업총국 부총국장 문재철동지,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고인을 추모하여 묵상한 다음 조의록에 글을 남기였다.

【조선중앙통신】

전국건설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전국건설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25일과 26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였다.

건설재료부문과 도시경영부문으로 나뉘여 진행된 이번 발표회에는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도시경영기술대학, 국가과학원 흑색건축연구소, 건축재료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 설계원, 박사원생들이 참가하였다.

발표회에는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을 받들고 우리 나라의 원료로 여러가지 건재들을 더 많이 개발하며 인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이룩된 70여건의 가치있는 론문들이 제출되였다.

《진흙기와성형제품의 실수률을 높이기 위한 방도》, 《화강석같이용수지연마석》, 《용광로슬라크세멘트》, 《초고층살림집에서의 자연환기단위결정방법》, 《다기능홀에서 유해가스에 의한 공기오염을 기류형성으로 없애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 《공기조화과정에 배출되는 공기속의 버린열을 회수리용하기 위한 연구》,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 평난방설계에서 에네르기절약에 대하여》 등의 론문들이 실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발표회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였다.

로씨야특명전권대사

친선모임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외교관계설정 70돐에 즈음하여 알렉싼드르 마레고라 주조 로씨야련방특명전권대사가 26일 친선모임을 마련하였다.

모임에는 외무성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조로친선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과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의향들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다채로운 체육경기들을 진행하며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였다.

가을철나무심기에 필요한 나무모생산성과 확대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에서 가을철나무심기에 필요한 나무모생산을 다그치고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최근에만도 잣나무, 아카시아나무, 밤나무를 비롯한 50여종에 2 600여만그루의 나무모를 키워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은 야외재배장, 원형식야외삽목장, 온실들에 대한 관리운영을 잘하는것과 함께 양묘장의 생산조건, 기술장비수준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고 경제적실리가 큰 나무모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다.

또한 가치있는 밤효피비생산방법을 연구도입하여 모들의 영양상태를 원만히 보장하는 한편 생육별, 단계별에 따르는 과학적요구들을 정확히 지켜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튼튼하게 키우고 지장과 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사름률을 훨씬 높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뜨거운 정성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펜을 드는 시각에조차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을가 하는 생각에 제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이 뜻하지 않은 일로 심한 뇌타박을 받고 의식을 잃은채로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 실려갈 당시까지만 하여도 소생할수 있다고 단정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응고된 커다란 피덩어리가 오른쪽뇌수를 심히 압박하고 동공이 다 풀린채로 의식을 잃은 아들의 꺼져가는 생명을 놓고 낳아준 부모도 눈물밖에 흘리지 못하고있을 때 출선 우리 아들을 위해 나선 의사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변명하선생님을 비롯한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신경전문병원 신경외과 의료일군들이였습니다. 무려 4시간에 걸치는 긴장한 수술과 집중치료실에서의 열흘간, 수십일간의 입원치료과정에 바쳐진 이곳 의료일군들의 정성과 헌신을 과연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하였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볼보다 뜨거운 정성이 상상조차 못하였던 기적을 낳았습니다. 나날이 호전되는 아들의 병상태를 두고 그치림기뻐하면서 건강회복에 좋은 영양음식도 안겨주며 온갖 성의를 다 바친 이곳 의료일군들의 모습을 저와 온 가족은 평생 잊을수 없습니다.

얼마전 수술부위에 대한 인공뼈이식수술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습니다.

혈육의 정을 초월하는 지극한 사랑속에 아들의 건강상태도 이제는 회복되였지만 환자를 돌보는 이곳 의료일군들의 세심하고 뜨거운 정성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있습니다.

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만약 우리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살고있다면 과연 오늘과 같은 기적을 상상이나 할수 있었을가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떠오르군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며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제일 행복한 인민이라는것을 더욱 심장깊이 새겨안게 됩니다.

재령군 읍 1인민반
전 룡 준

사람마다 자랑이요, 일터마다 혁신일세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로동계급의 생활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은 사회와 집단을 위한 로동에 의하여 담보되므로 사회와 집단을 위한 로동생활처럼 보람있고 영예로운 삶은 없습니다.》

흥겨운 노래소리 드높은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우리는 약동하는 시대의 숨결을 느낄수 있었다.

지금 계절에는 다시마모직장이 사업소적으로 제일 중요한 단위이라며 기사장 변문섭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땅농사는 봄에 씨뿌리고 가을에 수확하지만 우리 바다농사는 가을에 씨뿌리고 겨울에 이어 계속 수확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배양공들이 몹시 바쁩니다.》

그의 말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배양공들이 저마끔 배양장을 분주히 오가며 다시마모들의 생육을 감시하고있었다. 한명의 배양공이 배양장 한개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수백개의 배양틀이 있었다. 한개의 배양틀에서 한해에 5~6t의 다시마를 수확한다고 볼 때 이들이 생산하는 다시마량은 얼마나 많을것인가.

이따금 온도계와 조도계로 배양장의 물온도와 빛세기를 측정하기도 하고 측정일지에 무엇인가 또박또박 적어넣기도 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과학연구사업을 하는 연구사들을 방불케 하였다.

이곳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지금 수많은 배양공들이 자기 정량의 두배가 넘는 2 000개의 배양틀을 관리한다고 한다.

혁신의 앞장에는 한생을 배양공으로 일해오고있는 조남녀동무가 서있었다.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60년전 이 사업소의 전신인 부포수산사업소에 많은 다시마종자를 보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 일념을 안고 남편과 함께 배양공일을 시작했다는 조남녀동무, 그처럼 참된 지향을 안고 일터를 성실하게 지켜가는 혁신자들이 직장에는 참으로 많았다. 그들속에는 사업소적으로 다시마박사라고 소문이 자자한 실험실 실장 김명일동무도 있었다.

근 30년간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다시마여름모기르기방법을 비롯하여 다시마양식에서 제기되는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그것들은 지금 여러 단위들에 널리 도입되여 다시마수확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있다고 한다.

《온혜로운 어머니조국의 품을 떠나 제가 어떻게 오늘처럼 발명가가 되고 집단의 존경을 받는 혁신자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알고보니 그는 제대되여 당의 온정속에 흰산수산대학을 졸업하고 이곳에서 희망의 나래를 활짝 폈다. 어머니당과 조국의 품속에서 배우고 다져온 지식을 더 많은 다시마를 생산하는 길에 바치려는것이 그의 목표이고 의지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과학기술적성과들을 이룩할것을 그는 우리에게 굳게 약속하였다.

우리는 다시마모직장에서 배양공들이 리용하고있는 수온판측일지와 빛관리일지도 펼쳐보았다.

다시마모기르기와 관련한 각종 자료들이 수록되여있었는데 그것만 봐도 다시마양식의 선행공정을 맡고있는 이 직장이 늘 사업소의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는 비결에 대해 짐작할수 있었다.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의 은정을 잊지 않고 맡은 일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는 다시마모직장의 로동계급,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이고 우리가 가닿은 일터마다 혁신의 자랑, 증산의 자랑이였다.

배수리를 전업으로 하고있는 공무직장의 가공작업반에서는 유휴자재를 동원리용하여 배수리에 쓰이는 배못을 자체로 생산하고 있었다. 목공작업반과 전기작업반의 로동자들도 다시마수확에 동원되였던 목선들을 수리하고 다시마모배양에 필요한 전동기들을 수리하느라 무척 바쁜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김직장에 가보니 김발정리가 한창이였고 시설물직장의 종업원들은 양식장에 설치할 시설물생산에 여념이 없었다.

다시마풍작을 위해 한사람같이 펼쳐나 맡은 일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멀지 않은 앞날에 서해의 푸른 물결우에 펼쳐질 다시마바다를 그려볼수 있었다.

일터마다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일고있는 사업소였다.

애국으로 들끓는 이런 마음과 마음들이 합쳐져 무포바다가양식사업소는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였던 지난해처럼 올해에도 기어이 풍작을 이룩하고야말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얼마나 보람찬 생활인가. 사람마다 자랑이요, 일터마다 혁신이다.

누구나 애국의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으니 조국의 아름다운 바다와 더불어 꽃피는 그들의 투쟁과 생활에 어찌 랑만과 보람이 넘치지 않을것인가.

본사기자 오은별

함께 가는 길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발전설비1가공직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답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나가야 합니다.》

지난 8월초 어느날 발전설비1가공직장사무실로 한사람이 조용히 들어섰다.

수십년간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발전설비1가공직장에서 기능공으로 일해온 김희아바이였다.

《직장장동무에게 한가지 청이 있어서 왔수다.》

이렇게 말머리를 뗀 그는 현재 자기가 맡은 기대와 함께 발전설비가공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어느 한 대형반을 더 맡아들릴것을 직장장에게 제기했다.

《한 기대만 맡아가지고는 도무지 성찰것 같지 않습니다. 온 기업소, 온 직장이 지금 증산돌격운동에 펼쳐나섰는데 나이가 많다고 제 몫만 해서야 안되지요.》

그 순간 직장장의 가슴속에는 저도모르게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년로한 몸이지만 일손을 놓지 않고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오랜 로동계급의 진정앞에서 머리가 숙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날부터 김희아바이는 일감을 두툼히 맡아 수행하면서도 새 세대 로동자의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기 위해 시간과 정열을 아끼지 않았다.

그뿐이 아니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총궐기한데 대한 당의 호소를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집에서 년로보장을 받고있던 오랜 기능공들이 너도나도 생산현장으로 달려나왔다.

자기가 섰던 초소에 스스로 달려나와 발전설비가공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오랜 연공인 리영이아바이며 젊은 시절 유능한 선반공으로 자랑떨치던 그 기백을 안고 대상설비가공에서 제일 어려운 과제를 맡아안은 지성일아바이…

그들은 일손을 놓고 어생을 편안히 지내도 누구 하나 탓하지 않을 공로자들이였다. 허나 시대의 벅찬 부름앞에서 그들모두의 심장은 로혈을 불태웠다.

오랜 로동계급의 성심한 모습에서 큰 고무를 받은 발전설비1가공직장의 종업원모두가 한사람같이 펼쳐나섰다.

그들은 서로 돕고 이끌며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북창의 대규모전력생산기지에 보내줄 대상설비가공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갔다.

대안땅의 가두녀성들도 한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남편과 아들이 지켜선 초소에 자기들의 뜨거운 지성과 열정을 바쳐갔다.

력성동의 녀맹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녀성들이 성의있는 지원사업으로 전투원들을 새로운 위훈에로 고무추동하였으며 소년단원들도 노래와 춤을 안고 들끓는 전투현장을 찾았다.

이렇듯 나어린 소년단원으로부터 오랜 공로자에 이르기까지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뜻과 마음을 합쳐가는 속에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발전설비1가공직장은 대상설비생산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본사기자 리남호

산판에 울려가는 청춘의 노래

금강군 신원협동농장 청년축산작업반원들

금강군 신원리는 해발높이 400여m 되는 곳에 자리잡고있는 산골마을이다.

이곳 리소재지에서 서남쪽으로 20여리 가느라면 높은 산들이 잇달아 솟아있는 복판이라는 깊은 골짜기가 나지는데 바로 이곳에 신원협동농장 청년축산작업반이 자리잡고있다.

얼마전 우리가 청년축산작업반을 찾았을 때 청년들이 방목을 떠나고있었다. 수백마리나 되는 염소들과 양들이 무리를 지어 골판을 찾아가는 모습은 마치도 흰구름이 뭉게뭉게 떠가는듯싶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작업반장 리효성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산중턱에 위치한 축산기지를 돌아보았다.

숲속의 풍치에 어울리게 꾸려진 청년학교며 합숙, 식당과 세면장, 규모있게 들어앉은 짐승우리들과 창고…

그 어디를 둘러봐도 외진 산지에 아름다운 청춘의 자욱을 자랑스럽게 새겨가는 이곳 청년축산작업반원들의 진취적인 투쟁기풍을 엿볼수 있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별로 미치지 않는 깊은 골안에 청년들이 자진하여 달려나온것은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이였다.

그때로 말하면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시기였다.

막아나서는 애로와 난관은 많고 축사건물을 비롯하여 모든것을 새로 일떠세워야 하였으나 청년들의 가슴가슴은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을 받들어 무연한 초원에 염소떼, 양떼가 흐르게 할 욕망으로 부풀어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그런 속에 풀먹는 짐짐승종자들이 해결되고 과학적인 종자짐짐승생산체계가 확립되여갔으며 작업반의 면모도 일신되여갔다.

그 나날에 이들이 산중에 바쳐온 땀은 얼마였던가. 별빛조차 얼는 캄캄한 밤에 잃어버린 염소를 찾아 헤매이던 일이며 추운 겨울날 천인모르게 쓰러져가는 염소들을 붙안고 모지름을 쓰던 일, 비닐박막덧집을 지어놓고 장마철에도 전실전두를 중단없이 내밀던 일…

그뿐이 아니다.

축산을 잘하고있는 단위를 찾아가 경험을 배워오기도 하고 풀먹는 짐짐승기르기와 관련한 도서들도 탐독하면서 축산전문지식을 넓혀나갔다.

한 방목공처녀는 우리들에게 그때 있은 일들을 적은 두툼한 책을 보여주었다.

애써 노력한 보람이 있어 짐짐승과사들은 해마다 적어졌다고, 매 짐승들에게는 이름이 있는데 멀리서도 울음소리를 듣고 어느 짐승이 내는 소리인지 알아맞출수 있다고 하는 그의 이야기는 이들이 바쳐온 헌신의 자욱을 그려보게 해주었다.

해마다 많은 새끼염소들을 농장원세대들에 공급하고 염소젖은 리안의 락아소며 유치원들에 보내주고있는데 정말 가슴이 벅차오른다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그것은 당의 뜻을 꽃피우는 길에서 청춘의 영예와 행복을 찾을줄 아는 우리 청년들의 생활과 투쟁속에서만 꽃펴날수 있는 자랑이였다.

어디선가 방목공처녀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정답게 들려왔다.

끝없이 펼쳐진 산판에 아름다운 청춘의 자욱을 새겨가는 자랑을 안고 청년들이 부르는 노래는 산너머 저 멀리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본사기자 리건일

농장이 자랑하는 미더운 기계화초병

초산군 양토협동농장의 조광무동무는 뜨락또르와 함께 농촌진지를 지켜가는 미더운 기계화초병이다.

농장에 제대배낭을 풀어놓은 때로부터 60나이에 이른 오늘까지 그는 30여년간을 성실한 노력으로 뜨락또르를 애호관리하여 집단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다.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마련해놓고 짬시간마다 수리정비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여 뜨락또르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고있다.

논밭갈이와 씨레치기 등 맡겨진 영농작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는 그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새겨져있는 농장의 포전들마다에 풍요한 작황을 마련할 불타는 지향만이 가득차있다.

그는 농촌기계화초병의 자각을 안고 새 세대 뜨락또르운전수들도 많이 키워내고 연유절약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오늘도 그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심장으로 화답하여 올해를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결속하기 위해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로농통신원 리영하

하루에 비낀 비약의 숨결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미루보수직장에서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미루보수직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단축, 비록 두 글자밖에 안되는 그 말속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참된 인생관이 비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모두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결사관철하는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장앞에 보수중에 있는 보이라의 어느 한 설비의 날개를 교체해야 할 과제가 나섰을 때였다. 공정이 복잡하고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것으로 하여 작업날자는 3일은 실히 걸려야 하였다. 송영식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그것을 허용할수 없었다.

교체작업을 하루동안에.

기업소의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그것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확신했다.

무슨 일이든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그들의 배짱과 일본새를 너무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3개의 미루메달을 재생하는 작업이 그러하였다.

한개의 무게가 수t이나 되는것을 분해하여 상차, 하차, 옹착 그리고 가공, 조립까지 하는 전과정은 말처럼 헐한것이 아니였다. 하지만 보수2작업반, 연공작업반, 금탄기작업반 등 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모든 공정들을 치차처럼 맞물리면서 짧은 시간에 질적으로 작업을 완료하였다.

그때뿐이 아니였다.

수십개의 나사를 풀고 조이면서 진행하는 감속기치차교체작업도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치며 시간을 단축하여 알당겨 끝내였다.

기업소일군들이 정말 수고했다고 할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말전기의 동음이자 약동하는 조국의 맥박이 아닌가고, 그것을 지켜 우리가 있는것이라고.

이런 소중한 지향을 안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3일을 하루로 단축하기 위한 날개교체작업을 무리나게 다그쳤다.

제판작업반원들은 교대가 따로 없이 10여개나 되는 날개의 분해와 가공, 조립을 짜고들면서 불꽃튀는 전투를 벌렸다.

한두시간도 아니고 오랜 시간 용접을 하느라 지쳤지만 누구 하나 힘들다고 물러서는 사람이 없었다.

드디여 완성된 날개로 교체된 설비의 동음이 현장에 울리자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나라의 생명선을 지켜선 대동력기지의 전력생산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어린 승리자의 웃음이였다.

미루보수직장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흘렀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는 평범하고 례사로운 날들이였다.

시간을 주름잡아 달리는 그날들이 있어 전력생산의 동음이 더 거세차게 울리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진욱

한생을 변함없는 한모습으로

국가의약품검정원 고려약검정과 약제사 김명희동무

오늘 우리 사회에는 크게 눈에 뜨이지 않는 초소에서 수십년세월 변함없는 한모습으로 성실히 일해가고있는 참다운 애국자들이 무수하다. 그런 사람들가운데는 국가의약품검정원 고려약검정과에서 약제사로 일하고있는 김명희동무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의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김명희동무의 가슴속에는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떼던 때가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되여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던 때는 1960년대였다. 졸업을 앞두고 그는 자기의 전도를 놓고 생각이 많았다.

희망과 포부로 가슴 설레이던 김명희동무는 어느날 전쟁참가자인 학생당세포위원장과 마주앉게 되였다. 제대군인인 세포위원장이 그때 한 이야기는 한생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추억으로 오늘도 김명희동무의 가슴속에 새겨져있다.

당은 오늘 우리 청년들을 어렵고 힘든 초소로 부르고있다. 지금이야말로 당의 은정속에 대학공부까지 한 우리가 조국을 위해 자기 몸을 내대야 할 때이다. …

그 말에서 정신을 번쩍 차린 김명희동무는 졸업배치지를 지방으로 선택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사회생활의 첫 자욱을 불밤은 도시도, 고향도 아닌 황해남도의 어느 한 군인민병원의 약국에서 떼게 되였다.

가족, 친척은 물론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곳에서 처녀의 몸으로 사회생활을 하자니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이악하고 책임성이 높은 김명희동무는 인차 소문난 약제사가 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병원의 조치로 입원호실의 환자들을 맡아보게 되였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자신이 있었는데 호실의 탄불을 제대로 붙줄 모르는것이 속상한 문제였다. 한밤중에 자꾸만 죽는 탄불을 마주하고 어찌할바를 몰라 그가 눈물만 흘리고있을 때 그의 손에서 삽을 빼앗아드는 사람이 있었다. 며칠전에 입원한 아바이였다.

얼마 안있어 신기할 정도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탄불을 보며 온통 석탄칠을 한 얼굴에 웃음발을 날리는 애어린 처녀의 손을 꼭 잡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당에서 바라는 곳으로 선참으로 달려나왔으면 어떤 애로도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꼭 당원의 영예를 지녀야 한다.

알고보니 그는 군당위원회의 일군이였다. 그때부터 그는 자주 찾아와 당원이란 어떤 사람들이며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가르쳐주며 손잡아 이끌어주었다.

김명희동무는 마침내 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그때 그 일군은 당에 충실하겠다고 맹세한 오늘을 한생 잊지 말고 생의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살아가라고 따뜻이 고무해주었다.

20대 꽃나이에 대학을 졸업하고 보건부문에 첫발을 내디딘 때로부터 오랜 세월 김명희동무에게는 좋은 날도 많았지만 어렵고 힘든 시기도 없지 않았다. 그는 일부 사람들의 권고대로 다른 직업을 선택할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당원의 영예를 지닌 자기의 초소를 떠나지 않았다. 때로는 네 자식의 배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는 안타까움, 앓고있는 남편의 뒤시중도 미루며 출장길에 올라야 했던 괴로움도 있었다.

그 모든것을 가슴속깊이 묻고 그는 오직 당원이 되던 날 심장으로 다진 맹세를 굳건히 지키며 일해왔다.

그 나날 고려약발전에 이바지할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학위도 받았다.

그리고 고려약을 과학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을 벌려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기원이 확증된 고려약재를 대조로 하는 새로운 시험법을 완성하였다.

과장사업을 맡아할 때에도 헌신적인 노력으로 과를 검정원적인 기준과로 만들었다. 그리고 많은 석사들도 키워냈으며 지금도 마창남, 김철준동무들을 비롯한 검정원일군들의 뜨거운 믿음과 고무속에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가고있다.

어렵게 되여 수십년세월을 변함없이 한초소에서 묵묵히 일해올수 있었는가고 사람들이 물을 때면 그는 당조직과 동지들의 고마운 방조가 있었기때문이라고 말하군 한다.

어느덧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지도 오랬으나 김명희동무는 오늘도 당의 보건정책을 받들어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꿋꿋이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조국을 지켜 피흘려 싸웠건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상은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참답게 실현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어느 한 나라의 전쟁로병이 겪은 일이다.

어느날 그는 식료상점에 길게 늘어진 줄에 오래동안 서있었다.

차례를 기다리며 앞뒤에 줄줄이 늘어선 사람들은 모두 그와 같이 병약한 전쟁참가자들이거나 희생된 군인의 미망인들, 공로자들이였다.

당국에서는 그 어떤 사회적혜택도 받지 못하고 길가의 막돌처럼 내버려진 그들의 항의에 못이겨 먹을것을 눅게 따로 공급하는 제계를 세웠다고 하지만 그것은 빈말뿐이였다.

상점에서 간상배들과 짜고 식료품을 뒤문으로 빼돌리기 위해 주에 한번씩 공급함으로써 이렇게 긴 줄이 상점을 휘감다싶이 한것이다.

상점사업에 대하여 그 누구도 통제하지 않고 누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가를 검열하는 제계도 없었던것이다.

로병은 다리의 맥이 점점 빠져 더 서있기조차 힘들었다.

그의 몸에는 아직도 전쟁시기에 박힌 파편이 있었다.

삶의 거의 전부를 군복을 입고 이어온 로병, 그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있었다.

병사들의 땀내와 구수한 마라초냄새, 전호벽에 기대여 고향의 부모처자를 그려보는 화선의 저녁과 조국땅 한치라도 적들에게 내주지 않기 위해 벌리던 판가리결사전, 쓰러진 전우를 부둥켜안고 복수를 다짐하던 그날의 맹세…

전쟁시기 평범한 병사였던 그는 가렬한 싸움의 나날에 혁명의 간고성과 조국의 귀중함을 알았고 새 생활의 모든것이 병사들의 위훈으로 마련된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였다.

그러기에 그는 당국자들이 전쟁로병들과 병사들을 쓴외처럼 대할 때 나라는 다 망했구나 하는 허무감으로 하여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사회주의시기 로병은 국가의 혜택과 보살핌속에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생활을 누리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로병의 머리속에는 소금국에 헉띠마저 우려먹으며 싸우던 전투의 나날이 떠올랐고 놈들이 숨돌릴 사이도 없이 질풍같이 내달던 공격전투의 장면들이 잊혀지지 않았다.

그때 우리 세대들에게 그 무슨 자그마한 사심도 있었던가. 오로지 당과 조국, 인민의 리익외에 다른것은 모르지 않았던가.

그런데 너무도 신성했던 그 모든것이 우롱당하고있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치밀어올랐다.

어느날 그는 우연히 거리를 지나다가 창거리에서 혼장이 그득히 달린 군복외투를 팔기 위해 쭈그리고앉아있는 통년배의 한 로병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세상에 이런 변이 어디 있는가. 혼장과 메달 그리고 군복외투까지 우리 로병들이 팔아야 하는가.

어느 한 전투에 참가했던 한 로병은 전쟁시기 자기가 거기서 싸우다 희생되었더라면 조국을 위해 영웅적으로 전사했다는 말을 들었을텐데 살아난것이 죄가 되여 이렇게 값없이 죽는다는 유서를 써놓고 달려오는 렬차앞에 몸을 먼저 자살하였다고 한다.

전쟁로병들이 피와 땀, 청춘을 다 바쳐 지켜낸 사회주의화원이 그동안 가꿔주지 않아 잡초밭으로 되고 독초까지 무성해져 이제는 향기로운 꽃 한송이조차 찾아볼수 없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로병의 가슴엔 분노의 피가 끓어번지였다.

자기의 온갖 지혜와 재능, 피와 땀을 바쳐 이룩한 창조물은 그것이 비록 나사못 한개라 할지라도 더없이 소중하다.

하거늘 조국의 한치의 땅을 위하여 피흘리며 청춘시절을 아낌없이 바쳐 싸운 전쟁로병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붕괴는 자기의 살점이 찢기는것과 같았고 자본주의의 복귀와 더불어 빚어지는 온갖 비극적인 현상들은 그대로 가슴마다에 하는 아픔이였다.

전쟁로병은 장사진을 친 줄에서 뛰쳐나왔다. 로병들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그 너절한 《동냥의 행렬》에 더는 서있고싶지 않았다.

로당원, 로병사로서 이제 남은 생을 그저 주린 배나 채우고 생명이나 유지하는 《식물인간》으로 살고싶지 않은것이 그의 심정이였다.

로병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그 모든것을 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은 혁명의 배신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살아있는 로병으로서 먼저 간 전우들앞에 면목이 없었고 죽어서도 눈을 감을수가 없을것 같았다.

그리하여 로병은 신문에 《로병들을 모욕하거나 우롱하지 말라》는 글을 발표하고 사회주의재생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그에게 차례진것은 앞선 세대로서 후대들에게 땅과 물질적재부만이 아니라 고귀한 정신적유산을 넘겨주지 못한 때늦은 후회와 통탄이였다.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들에서 로병들이 쥐은 가슴아픈 비극, 그것은 우리의 가슴마다에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사회주의를 버리면 죽음이라고.

본사기자

죽음의 고역장

1939년 12월 어느날 일본자본가놈이 경영하는 광산에서 있은 일이다.

네발걸음으로 겨우 질통을 지고 나오던 제봉이라는 청년은 허기증으로 정신이 아찔해지는 통에 쓰러지게 되였으며 그바람에 등에 졌던 쇠돌은 다 쏟아지고말았다. 그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죽을힘을 다해 굴안에서 기어나왔을 때였다.

《이놈의 새끼, 왜 빈통을 지고 나와? 네 애비 장례값이 얼마인줄 알기나 하는가?》

굴어구를 지키고있던 감독놈의 고함소리였다.

《장례값이라니요? 어기서 생죽음을 당한 우리 아버지장례야 로동자이서씨들이 해주지 않았나요.》

제봉은 개화장을 휘두르며 눈앞을 부라리는 감독놈에게 이렇게 쏘아주었다.

《이놈, 무엇이 어쩌구 아째?》

놈은 개화장으로 제봉의 이마를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순간 제봉이는 얼굴을 싸쥐고 그 자리에 죽 꼬꾸라졌다. 악귀같은 이놈은 반주검이 된 그를 질질 끌어다가 철길우에 얹어놓고는 《전차!》 하고 고함을 지르는것이였다. 전차로 깔아죽이려는 심산이였다. 이 광경을 보던 광부들의 눈에서는 불이 일었다. 그들은 성난 사자와 같이 폴려가 그놈을 요정내였다. …

나라없던 그 세월 우리 인민에게 차례진것은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 죽음뿐이였다.

본사기자

의지에 넘쳐있다. —중앙계급교양관에서—

계급적원쑤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굳은 각오받고 압박받던 지난날을 되새기며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를 지니시고

력사적인 평양수뇌상봉과 회담, 《9월평양공동선언》의 채택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한껏 북돋아주고있다. 세계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립장과 의지가 얼마나 확고부동한가 하는것을 다시한번 느끼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놓여있었다. 허나 지금은 과거의 일로 되였다. 북남관계는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섰으며 조선반도정세는 평온과 안정을 되찾았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위업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펼쳐진 오늘 해내외의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 그이의 세련된 령도력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갈것입니다.》

민족운명개척의 세시대는 저절로 마련되는것이 아니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비범한 령도력을 지닌 탁월한 위인에 의하여 시대의 리정표가 제시되고 그의 전진이 이룩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을 지니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길에 새겨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헌신의 자욱마다에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뜨겁게 흘러넘치고있다.

조국과 민족을 그토록 열렬히 사랑하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뭇깊은 울해를 민족분렬의 비극과 고통을 끝장내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는데서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올해신년사에서 조성된 정세와 겨레의 통일지향, 변화된 조선반도의 전략적구도를 정확히 반영한 새로운 북남관계개선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열렬한 민족애와 투철한 통일의지,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현명한 방략을 담고있는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은 내외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북남관계대전환방침에 따른 실천적이며 과격적인 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여 오래동안 이그러졌던 비극적인 북남관계를 바로잡아주시였다.

우리 고위급대표단의 남조선방문과 예술단, 선수단, 응원단 등의 파견으로 온 남조선땅은 통일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고 평화와 통일의 기운은 날로 고조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통일애국의 결단과 의지에 의해 지난 4월 27일 분렬과 고통, 대결과 적대의 상징으로 되여온 판문점에서 드디여 력사적인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책임지고 개척해나갈 확고한 의지를 담은 판문점선언이 채택되였다. 판문점선언에는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겨레에게 하루빨리 환희와 격정의 래일을 안겨주시려는 그이의 애국의 뜻과 의지가 그대로 어려있다.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타는 의지는 그이께서 북남수뇌회담장소에 평양시간과 서울시간을 가리키는 시계가 각각 걸려있는것을 보시고 매우 가슴아파하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준시간을 다시 제정하도록 하시여 북과 남의 시간부터 통일시킨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판문점선언의 리행으로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평화번영의 흐름을 더욱 추동해나가실 확고한 결심을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있은 때로부터 한달만에 또 한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여 우리 겨레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안겨주시였다.

열렬한 통일의지로 심장을 끓이시며 뜨거운 민족애와 포용력으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위업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원대한 뜻과 의지에 의해 평양에서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우리 겨레는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로 되는 《9월평양공동선언》을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이의 넓은 도량과 숭고한 동포애, 고매한 인품에 대하여 격정에 넘쳐 이야기한다. 이것은 절세의 애국자, 애국애족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배후과 흠모심의 분출이다.

온 겨레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평양수뇌상봉과 회담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조국과 민족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그이의 무한한 헌신과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절세위인의 뜨거운 동포애와 인정미, 무한대한 도량과 겸허하고 소탈하신 인민적풍모는 평양국제비행장과 백화원영빈관, 평양대극장과 목란관 그리고 옥류관,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과 5월1일경기장 등에 그대로 비끼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북남수뇌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백두산에 오르신것은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이였다.

삼천리강토를 한지맥으로 안고 거연히 솟아 빛나는 백두산, 절세의 애국자를 맞이한 민족의 성산 백두산은 하늘높이 솟아오른 뫼부리마다에 명료한 정기를 내뿜고 거창한 산악미와 천지호반의 장쾌한 전경을 그대로 펼쳐드렸다.

우리 겨레는 백두산에 조국과 민족을 위한 뭇뗏한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에서 다가오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희망찬 미래, 영원토록 무궁번영할 우리 민족의 래일을 확신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김정은위원장 백두산행의 력사…〈큰 걸심〉때마다 방문》, 《평화의 첫솔밭은 백두산》, 《통일징조》, 《통일로 가는 길》 등으로 대서특필하였다.

정녕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을 안으시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온 겨레가 우러러따르고 높이 받들어모셔야 할 천출위인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고 절세위인의 뜻과 의지를 따르는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이 있기에 조국의 자주적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본사기자

눈길을 끄는 인상적인 평양의 모습

평양을 방문한 남측수행원들과 언론의 반향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남측수행원들과 언론들이 앞을 다투어가며 소감을 발표하여 각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달라진 평양의 모습이 인상적이였다, 특히 거리와 건물들의 규모와 모양을 보고 놀랐다고 하면서 제재속에서도 여유있고 활기있는 시민들의 모습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SK그룹 회장은 11년만에 평양에 다시 와보니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는것을 알수 있었다고 하면서 거리들이 다양하였다고 찬탄하였다.

남조선 유선종합방송 《JTBC》는 그동안 전해졌던 평양의 모습이 현실과 달랐다, 위성사진에서는 작은 네모로만 보였던 개선문을 가까이에서 보니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보다 더 크다는 말이 실감이 간다, 이번에 직접 취재진이 찍어보낸 화면속의 평양의 모습은 알락달락하였다, 창전거리에는 현대식으로 지은 건물들이 솟아있다, 이번 수뇌상봉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평양의 가을이 활엽기에 고스란히 담겨졌다고 지적하였다.

언론들은 평양이 변화된 모습으로 방문단뿐아니라 남조선 각계의 눈길을 끌고있다고 하면서 시내의 초고층건물들은 미국 뉴욕시의 맨하탄을 방불케 하고있다고 전하였다.

언론들은 려명거리가 70층 아빠트도 있는 새로운 도시로서 김정은위원장의 지시아래 지난해 4월에 완공되였다고 밝혔다.

북이 그동안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등을 건설하며 과학기술발전에 힘을 써왔다고 언론들은 강조하였다.

남조선여당

4.27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에 나설것을 호소

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일 4.27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9월평양공동선언》 리행에 야당들이 적극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야당들이 랭전시대의 정쟁에서 벗어나 이제 더는 거스를수 없게 된 조선반도 평화의 도도한 력사적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전 보수《정권》들에 의해 조선반도의 평화가 10년동안이나 실현되지 없었고 남북관계는 퇴보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평양수뇌회담이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제5차 북남수뇌회담을

로씨야단체들이 축하

력사적인 제5차 북남수뇌회담을 축하하여 로씨야단체들이 20일과 21일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전로씨아페넌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9월평양공동선언》은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매우 중요한 리정표로 된다.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울이신 노력을 열렬히 격찬한다.

그이의 담대한 결단과 높은 정치실력, 주동적인 조치에 의해 조선통일은 앞당겨지고있으며 전세계 진보적인류는 이를 열렬히 환영하고있다.

모스크바주재사상연구소조는 《9월평양공동선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조국통일념원을 실현하시려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의지에 의하여 마련되였다고 하면서 력사적인 선언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였다.

지역사회조직 《보로지노》는 《9월평양공동선언》의 내용을 상세히 지적하고 성과적인 북남수뇌회담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는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성명하였다.

공화국창건 70돐 경축모임

여러 나라에서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모임이 로씨야, 우크라이나, 도이췰란드, 오스트리아, 에스빠냐, 딴마, 인디아, 파키스탄, 리비아에서 1일부터 11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모임들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로씨야련방 페넌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후 지난 수십년간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사회주의길을 꿋꿋이 걸어왔다고 하면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표시하였다.

로씨야지역사회조직 《보로지노》 위원장은 김정은동지의 주동적이며 담대한 결단에 의하여 오늘 조선반도에는 평화와 안정의 기류가 흐르고있으며 국제정세는 그이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고있다, 김정은동지께 가장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언급하였다.

우크라이나 리보브주재사상연구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아래 빛나는 승리만을 이룩하여온 조선의 모습은 세계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 본보기로 된다.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모신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달성하고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조선지도부의 견결성과 승리에 대한 인민의 확신, 나라의 비약적인 발전은 온 세계를 경탄시키고있다.

딴마인민주권령 양곤지역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선인민의 뜻깊은 명절을 함께 경축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의 경축행사가 조선에 대하여 더 잘 알게 하고 두 나라사이의 친선과 뉴대를 두터이하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금으로부터 70년전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신데 대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전변시키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로씨야련방 페넌공산주의청년동맹, 도이췰란드 조선문화연구소조, 조선과의 친선협회 도이췰란드지부,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에서 진행된 모임들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화를 위협하는 사무라이후예들의 광기

일본반동들이 판에 박은 《북조선위협》에 대해 계속 떠들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대결광기를 부리고있다.

얼마전 일본반동들은 《미싸일과 군용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확충》의 구실밑에 막대한 자금을 랑진하여 미국으로부터 조기경보기 9대를 긴급구입하였다. 한편 대평양상에서 우리를 겉고 미국과 함께 해상 《자위대》의 최신예이지스구축함에 새로 탑재한 탄도미싸일요격체계를 검증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그런가 하면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특별보좌관이라는자는 미국의 워싱톤에서 열린 그 무슨 토론회라는데서 저들이 《현존하는 북조선의 위협에 위약》하다고 하면서 독자적인 선제타격능력의 보유를 주장해나섰다.

일본반동들이 조선반도에서 대화와 긴장완화의 분위기가 지속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배치되게 있지도 않는 《북조선위협》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며 군사적대결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실로 고약스럽기 그지없다. 그것은 모처럼 마련된 정화의 기회를 어떻게 하나 깨버리기 위한 고의적인 책동이다.

남을 겉고들며 제 리속을 채우는것은 섬나라족속들의 체질적인 악습이다. 일본반동들의 군사적대결광기는 조선반도의 정세악화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교활한 계책의 발로이다.

지금 일본반동들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꾸면서 침략의 과거를 되살려보려고 발광하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재침야망에 사로잡힌 일본의 집권세력은 해외침략의 길에 합법적으로 뛰여들수 있는 구실을 찾고있다. 그것이 바로 《북조선위협》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금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의 정세는 화해와 단합, 대화와 평화에로 확고히 지향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에 의하여 마련되고있는 현정세흐름은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열렬한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가 대세로 되고있는 바로 이런 때에 일본반동들은 가슴뼈구기처럼 우리의 그 무슨 《미싸일위협》에 대해 고아대며 정세를 어떻게 하나 긴장시키고 독자적인 선제타격능력까지 갖추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일본이 더무너없이 우리를 겉고들며 군사대국화에로 질주하고있는것은 매우 위험하다. 왜나라족속들의 재침야망은 도수를 넘었으며 이제는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를 펄럭거리며 버젓이 남조선에 기어들겠다고 호통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본반동들은 지난 세기와 마찬가지로 조선반도를 군사적으로 타고앉고 그를 발판으로 하여 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실현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인류의 넘원에 역행하는 사무라이후예들의 광기로 하여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깃들고있는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지역에 새로운 침략전쟁의 위협이 골려오고있다.

문제는 미국이 전범국인 일본의 위협천만한 군사대국화책동에 대해 비호두둔하며 아베패당을 재무장에로 부추기고있는 사실이다.

현실은 세계가 똑바로 눈을 뜨고 경계해야 할것은 그 무슨 《북조선위협》이 아니라 인류에게 또다시 참화와 재앙을 들씌우기 위해 전쟁국가에로 질주하는 일본반동들의 발광적인 준동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최근 일본당국자들은 련일 우리와의 대화에 대해 운운하며 《새로운 시대》니, 《평화와 번영의 주추돌》이니 하고 광고하고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보다싶이 우리를 겉고들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재침야욕을 실현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평화의 막뒤에서 침략의 칼을 벼리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요설을 늘어놓는 것이야말로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행위이다.

일본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고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계속 광분하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대일결산의지를 더욱 치솟게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저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사무친 증오와 무자비한 보복의지를 똑바로 보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할것이다.

심철영

이란에서 합동항공군사연습 개시

이란군과 이슬람교혁명근위대가 21일 페르샤만수역과 오만해에서 합동항공군사연습을 개시하였다.

《성스러운 방위주간》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연습에는 《F-4》, 《루카노》, 《치누크》 등 각종 전투기와 무장직승기들이 동원되였다.

연습의 목적은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하고 그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데 있다고 한다.

금연정책을 견지할 립장 천명

우루과이대통령 따바레 라몬 바스께스가 20일 엄격한 금연정책을 견지하려는 립장을 천명하였다.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이 상업적리익을 얻는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는 금연과 관련한 조치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금연활동을 적극 벌린 결과 주민들속에서 흡연자비률이 35%에서 21%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위성발사 계획

마르끄가 11월에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지구관측위성을 쏘아올릴것을 계획하고있다.

《모함메드 6-B》로 명명된 위성은 매일 많은 량의 화상자료를 전송할수 있으며 환경보호, 자연재해방지 등 여러가지 목적에 리용될것이라고 한다.

여러 나라들 협조

중국과 로씨야가 18일 두 나라사이에 보다 유리한 투자환경과 거래조건을 마련하여 투자협조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데 관한 합의를 이룩하였다.

같은 날 알제리와 아랍추장국련방은 에네르기개발리용분야에서 호상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17일 꾸바와 가나는 두 나라사이의 정치적협조와 대화를 발전시킬데 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교육발전노력

잠비아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의 7개 주들에 82개의 중등학교를 새로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 기간 760여명의 교원을 양성하는 사업에도 관심을 돌리게 된다.

재생에네르기리용사업 추진

몽골이 최근 국제기구와의 협조밑에 재생에네르기를 리용한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정부는 2023년까지 지열을 비롯한 각종 재생에네르기를 리용하여 4만 1 000㎾의 발전능력을 조성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계획이 실현되면 28만 5 000명이상의 주민들이 그 덕을 보게 되며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대기오염과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줄이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소아마비예방접종 시작

파키스탄에서 24일 소아마비예방접종을 시작하였다.

단기적인 계획실행기간 전국적으로 5살미만 어린이 1 000만여명이 접종을 받게 된다.

7만 9 000여개의 그루빠가 철도역, 버스정류소 등 공공장소들에서 접종을 진행한다.

【조선중앙통신】

날로 발전하는 관광업

오늘은 세계관광의 날이다.

1979년 에스빠냐에서 진행된 세계관광기구총회 제3차 회의에서는 매해 9월 27일을 세계관광의 날로 기념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세계관광의 날이 제정된 목적은 세계적으로 관광이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경제생활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관광의 역할과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자는데 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세계관광기구는 해마다 세계관광의 날을 맞으며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고 여러가지 활동과 행사들을 벌리고있다.

나라와 민족들의 문명수준과 생활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세계적인 교류와 협력이 긴밀해지는 과정에 사람들은 더 많은 곳에 가보고싶어하고 더 많은것을 체험해보고싶어한다.

관광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높아감에 따라 관광은 점차 독자적인 산업분야로 발전하게 되였다.

관광은 발생초기 관광객들에 대한 관광안내봉사만으로 시작되였다.

그후 관광객운수, 숙박, 식사, 편의 및 체육문화오락봉사 등 분업들이 포괄되면서 관광업은 종합적인 봉사부문으로 하나의 일체화된 체계를 형성하게 되였다.

관광업은 국제적인 래왕과 교류, 호상협조와 리해, 친선을 도모하는 중요한 공간의 하나로 되였다.

관광을 하는 과정에 해당 나라의 정치와 경제, 문화, 풍속 등에 대하여 깊은 리해를 가지게 된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관광업을 중시하고있다.

관광상품들을 늘이고있으며 새로운 형식으로 해당한 대상들에 대한 생동한 체험을 하게 하고있다.

1987년에 세계관광기구 성원국으로 된 우리 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과 협조, 교류를 발전시키며 우리 인민들에게 풍부하고 문명한 문화정서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관광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관광업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훌륭한 문화관광시설들이 수많이 일떠서 나라의 관광업발전에 활력을 부어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바다가지역의 명승지로 이름난 송도원과 마전, 룡수포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이 해안관광지들로 리용되고있으며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해안관광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웅장화려하게 건설되고있다.

다른 나라들도 주요도시들과 명승지들을 관광지로 꾸리고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벌리고있다.

박진향

이브라힘 모하메드 쏠리흐 말디브대통령으로 선거

말디브에서 이브라힘 모하메드 쏠리흐가 대통령으로 선거되였다.

그는 최근에 있은 대통령선거에서 과반수의 지지표를 받았다.

24일 이 나라 선거위원회가 이에 대해 밝혔다.

분맹퇴치사업의 중요성 강조

남부수단부대통령이 21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분맹퇴치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많은 주민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다나니 그릇된 길로 빠져들고있으며 그로 하여 나라에는 폭력, 전쟁과 관련되는 나쁜 문화가 성행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교육만이 문화적락후성을 끝장낼수 있다고 하면서 그는 분맹퇴치는 나라의 정치적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였다.

수리아에서 《반테로련합》의 공습으로 민간인피해

수리아에서 《반테로련합》의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있다.

23일 이 나라의 한 인권감시단체는 지난 4년동안에 《반테로련합》의 공습으로 수천명의 평화적주민들이 사망하였다고 전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자연재해

큰물피해

나이제리아의 지가와주에서 폭우에 의한 큰물로 21일현재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천명이 소개되였다.

또한 많은 침침승이 죽고 100㏊의 농경지가 침수되였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 7월말부터 무더기비가 계속 내리고있으며 그로 하여 많은 피해가 초래되고있다고 한다.

열파현상으로 피해

일본에서 8월에 열파현상이 지속되여 3만 410명이 병원으로 실려가고 그중 20명이 목숨을 잃었다.

20일 이 나라 해당 기관이 밝힌데 의하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전국적으로 9만 2 320여명의 열사병환자가 등록되였다고 한다.

태풍피해 계속 확대

필리핀의 북부지역에서 지난 15일에 들이닥친 태풍으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태풍에 의한 각종 재해로 19일현재 사망자수가 81명, 행방불명자수는 70명으로 늘어났으며 농업부문손실액은 약 143억p(필리핀페소)에 달하고있다 한다.

폭우와 가물

튜니지의 동북부지역에서 최근 폭우가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

폭우로 23일현재 5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도로들이 물에 잠겨 교통이 마비되였다.

한편 올해 가뭄철에 세스뜨의 농업부문에서는 약 110억-120억KC(세스뜨꼬루나)어치의 손실이 초래되였다. 그로 하여 식료품가격이 뛰여오르는 등 물의가 빚어지고있다.

미국의 테로관련보고서 배격

베네수엘라외무성이 20일 성명을 발표하여 국제테로와 관련한 미국무성의 보고서를 배격하였다.

성명은 문제의 평가자가 다름아닌 세계의 주되는 테로지지자인 조건에서 베네수엘라는 감히 다른 나라들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것과 같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 및 금융제재는 물론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간섭위협은 평화로운 사회들에 테로와 고통을 가하는것과 다를바 없다고 강조하고 성명은 미국이 마두로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계획하고 자금을 보장하는 등 베네수엘라의 반정부세력들을 지원하고있는데 대해 폭로단죄하였다.

이스라엘군의 살륙만행

이스라엘군이 21일 가자지대와의 경계지역에서 시위에 떨쳐나선 무고한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총사격을 가하였다.

그로 하여 팔레스티나인청년이 살해되고 31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지난 3월말이래 이스라엘군의 무차별적인 살륙만행으로 팔레스티나인들속에서 184명의 사망자와 약 2만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뽀르뚜갈에서 항의시위

뽀르투갈의 리스본에서 19일 외국택시봉사업체들의 영업을 반대하는 택시운전사들의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수백명의 택시운전사들은 주요도로에 차들을 세워놓고 당국이 국내에서 외국택시봉사업체들의 영업을 승인한것도 모자라 그들에게 우대조건까지 보장해주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외국택시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요구가 실현될때까지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립장을 밝혔다.

이날 뽀르투와 파루에서도 이와 같은 시위들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ㄱ-181153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통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